



해외 기업들 한국관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

‘World Nuclear Exhibition 2018’을 다녀와서

최규빈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사업진흥실 주임

역대 최고의 전력 수요를 전망할 만큼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6월 27~29일, ‘원전 강국’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World Nuclear Exhibition 2018」(이하 WNE)에 참석했다.

프랑스, 혹은 파리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궁 등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문화유산이나 세계 4대 요리 중 하나라는 프랑스 요리 등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처음 접한 파리의 모습은 대규모 철도 파업이었다. 삼십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늘어난 배차 시간보다 더 놀라운 것은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파리 시민의 모습이었다.

프랑스 국민이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자력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합리성에 기반을 둔 관용, 즉 ‘톨레랑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프랑스의 자부심-원자력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인근에 위치한 빌팡트 전시장(Paris Nord Villepinte Exhibition Centre)에서 진행된



WNE 2018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WNE의 개막식에는 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브루노 르 마리(Bruno Le Marie) 장관과 아mano 유키야(Amano Yukiya) IAEA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세계 원자력산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WNE 전시회장 전경

르 마리 장관은 “프랑스 원자력산업계 종사자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며 프랑스 원자력산업계의 국가 경제 공헌을 치하한 후 “프랑스의 원자력산업은 무려 22만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웃 나라 독일에 비해 40%나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르 마리 장관은 또한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보관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을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프랑스 국민들 역시 상당수가 원자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원자력이 프랑스 국가 경제에 공헌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장관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원하는 중국 원자력산업

이번 WNE 2018 전시회에는 60개국에서 150개 부

스를 운영하였는데, Orano(전 AREVA), Framatom 등 프랑스 주요 기업이 대거 참석한 프랑스관, 그리고 거대한 규모를 과시한 러시아관보다 가장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끈 곳은 국가핵전기술공사(CNPTCC) 등이 참가한 중국관이었다.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운영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 원자력산업계는 2015년에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러한 중국의 ‘원전굴기(原電屈起)’의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있다. 파키스탄 원전 수주 당시에는 총건설비 약 95억 달러의 82%인 78억을 저리(低利)로 융자해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 CNPTC 부스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AP-1000 원전 기술이전협약식에 참석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아래 중국은 전기 없이 72시간까지 작동 가능한 3세대 원자로인 CAP-1400을 개발했으며, 유럽형가압경수로(EPR)인 Taishan(태



전시회 참석자들이 한국관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국관은 'Team Korea'와 'KHNP Partners'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산) 1호기를 금년 7월 세계 최초로 계통 연계 및 발전을 완료하였다. Taishan 1호기는 금년 하반기로 상업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뤄낸 수출 성과가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원자력산업에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관의 성과와 과제

한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은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공기업과 두산중공업으로 구성된 'Team Korea'와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삼신, 태원인더스트리, 프론틱스, 유니스이테크, 코리아뉴클리어파트너스, ES다산, 뉴클리어엔지니어링, 씨엔엘, 고려호이스트, 에너지엔 등 원자력 강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KHNP Partners'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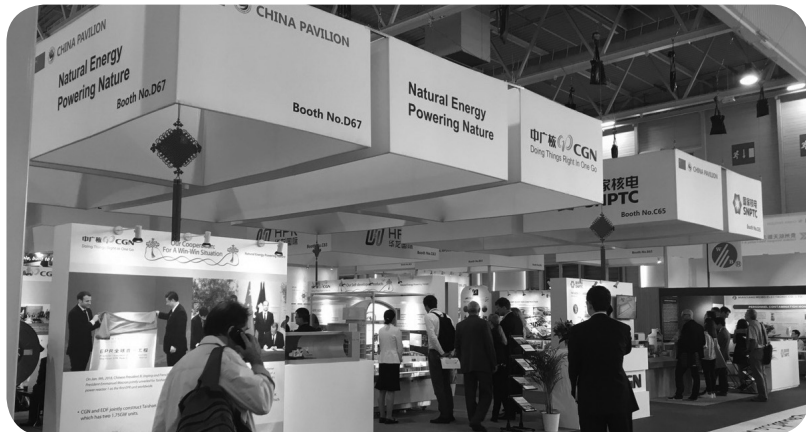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터키 등 신규 원전을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국가의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APR1400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향후 협력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밸브, 피팅, 도어, 펌프 등 각종 원전 기자재 공급자들이 참여한 한국 중소기업관은 각국에서 참가한 다양한 기업의 상담이 진행됐다. 중국, 대만 등에서 진행된 전시회에 비해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 바이어들이 방문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운영, 해체, 정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업이 참여한 전시회의 특성상 EDF를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와 교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프랑스원자력협회(GIIN) 등 유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판매 희망 분야에 적합한 현지 기업을 물색해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관 모습.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터키 등 신규 원전을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국가의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APRI400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향후 협력 계획을 논의하였다.



중국관 전경. 중국 CNPTC 부스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AP-1000 원전 기술이전협약식에 참석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마치며

세계 각국에서 8천 여명이 참석한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 발전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 특히 많은 해외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판로 개척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준 점에 보람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초행길인 유럽,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도시인 파리에 가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준비 과정이나 현장 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미팅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